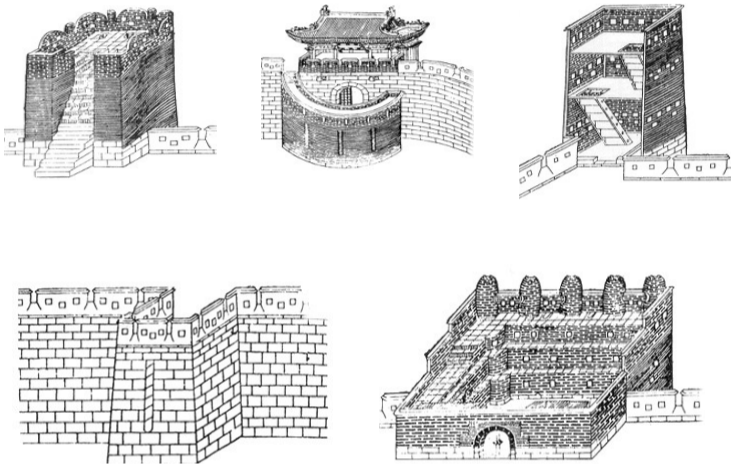


언어영역

1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 점입니다.

아닌 것은?



옳은 것은? [1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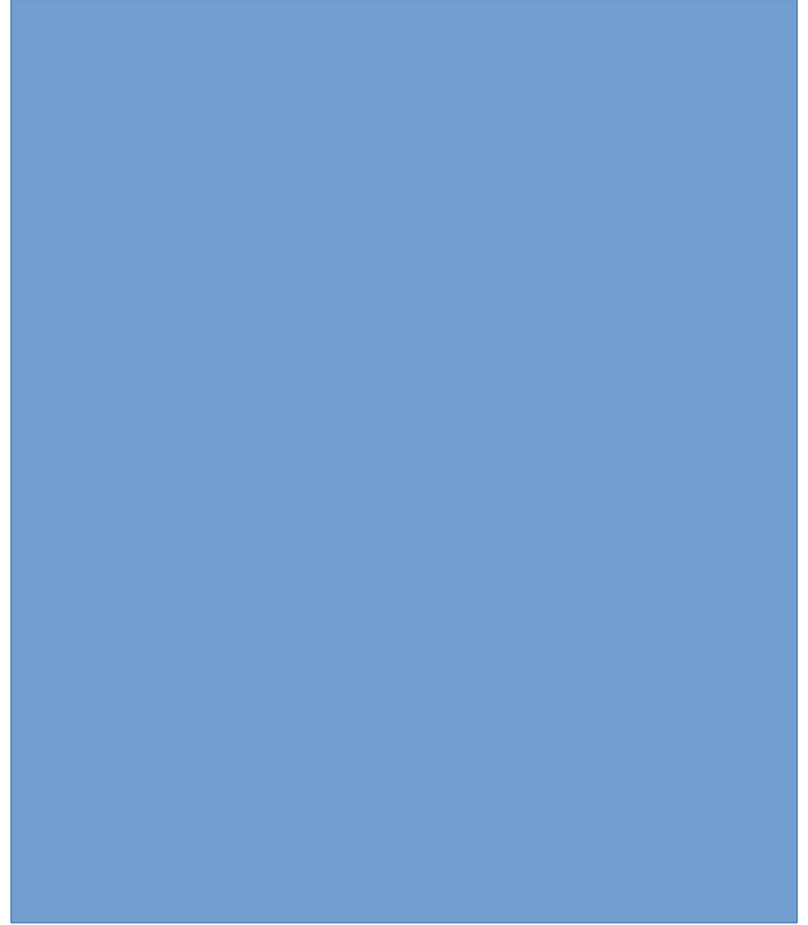
못한 말을 한 학생은?

잘못 이루어진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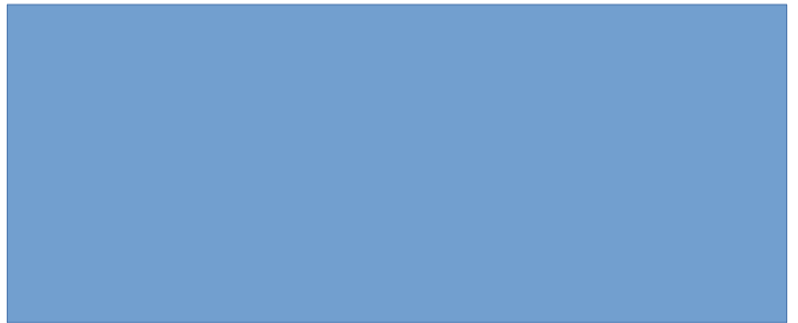
언어영역

않은 것은?



으로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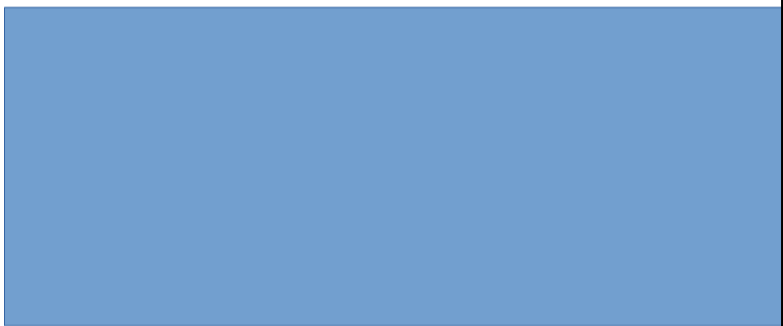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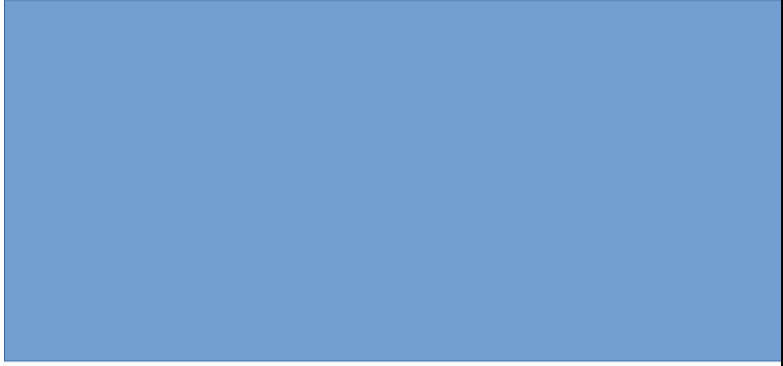
않은 것이다. 적절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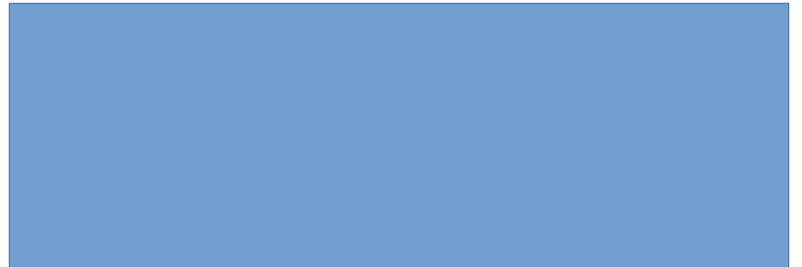
언어영역

3

않은 것은? [1 점]



않은 것은? [1 점]



않은 것은?

파던 사람이 세상 물정을 알겠니?

덜었다.



언어영역

갈던지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먹은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하자.

잘라 버렸다.

누군가가 흰 타올과 신문지를 가져왔다. 노인은 뺏조각을 하나씩 집어들고 수건으로 흠을 닦아낸 다음 그것을 펼쳐진 신문지 위에 가지런히 정리해 놓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이 치도 아마 빨갱이였겠구만, 안 그래요?"

소대장이 지휘봉의 뾰족한 끝으로 쿡쿡 찌르듯 유해를 가리키며 말했다. 인사제가 되물었다.

"어쨌서요."

"산을 타고 도망치던 빨치산들이 그리 많이 죽었다잖아. 이 치도 보기엔 군인은 아니었을 것 같고, 그렇다고 근처의 주민이었다면 가족이 있을 텐데 임자 없이 이 꼴로 팽개쳐뒀을라구."

"그걸 누가 압니까. 그때야 워낙 피차에 서로 죽고 죽이던 판인데."

그때였다. 쭈그러 앉아서 손을 움직이고 있던 노인이 불쑥 소리치는 것이었다.

"땅속에 누운 사람의 잠을 살아 있는 사람이 깨워서야 되겠소. 또 그럴 수도 없는 법이고. 원통한 녀이니 죽어서라도 편히 눈감도록 해야지. 암, 그것이 산 사람들의 도리요……. 하기는, 이렇게 불편한 꼴로 묶여 있었으니 그 잠인들 오죽했을까만."

노인은 어느 틈에 꾸짖는 듯한 말투로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다. 두개골과 다리뼈를 꼼꼼히 문질러 닦은 뒤, 노인은 몸통뼈에 묶인 줄을 풀어내기 시작했다. 완강하게 묶인 매듭은 마침내 노인의 손끝에서 풀리어졌다. 금방이라도 찢각찢각 쇠소리를 낼 듯한

은 싱싱하게 살아 있었다. 살을 녹이고 뼈까지도 녹슬게 만든 그 오랜 시간과 땅 밑의 어둠을 끝끝내 견뎌내고 그렇듯 시퍼렇게 되살아 나오는 그것의 놀라운 끈질김과 냉혹성이 언뜻 소름끼치도록 무서움증을 느끼게 했다.

노인은 손목과 팔에 묶인 결박까지 마저 풀어낸 다음 허리를 펴고 일어서더니 줄 묶음을 들고 저만치 걸어나갔다. 그가 허공을 향해 그것을 멀리 내던지는 순간, 나는 까닭 모르게 마당가에서 하늘을 치어다보며 서 있는 어머니의 가녀린 목줄기와 그녀가 아침마다 소반 위에 떠서 올리곤 하던 하얀 물사발이 눈앞에 떠올랐다가 스러져버리는 것이었다.

<중략>

아아, 나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가 그토록 오랫동안 누군가를 기다려왔었음을. 내 유년 시절의 퇴락한 고가의 마루 밑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음습하고 불길한 냄새와 함께 나를 쏘아보고 있던 한 사내의 눈빛을, 그리고 청년이 된 지금까지도 가슴을 새까맣게 그을려 놓으며 깊숙한 상흔으로만 찍혀져 있을 뿐인 그 증오스런 사내의 이름을, 어머니는 스물다섯 해가 넘도록 혼자서 몰래 불씨처럼 가슴속에 키워오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한테 그 사내는 다른 아무것도 아니었다. 다만 곱고 자상한 눈매로서만, 나직한 음성으로서만 늘 곁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울고 있는 건 그 미련스럽도록 끈질긴 기다림 때문만은 아니었으리라. 아니, 사실상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터였다. 그녀의 기다림이 얼마나 까마득하게 손이 닿지 않는 먼 곳으로 자꾸만 자꾸만 밀려나가고 있는 것인가를 말이다. 스물다섯 해의 세월이, 스스로 묶어 놓은 그 완고한 기만이 목에 잠기어 흐느낌도 없이 지금 어머니는 울고 있는 것이었다. 밥상을 받아놓은 채 나는 고개를 처박고 앉아 있었다. 눈앞에는 우리 가족의 그 오랜 어둠과 같은 미역가닥이 국그릇 속에서 멀쩡게 식어가고 있을 뿐이었다.

이제 노인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새 수북이 쌓인 눈을 밟으며 나는 오던 길을 천천히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어깨에 멘 소총이 수통과 부딪치며 찼렁찌렁 소리를 냈다. 나는 어깨로부터 전해오는 그 섬뜩한 쇠붙이의 촉감과 확실한 중량을 새삼스레 확인하고 있었다. 그리고 항상 누구인가를 겨누고 열려 있는 총구의 속성을, 그 냉혹함을, 또한 그 조그맣고 둥근 구멍 속에서 완강하게 파리를 틀고 앉아 있는 소름끼치는 그 어둠의 깊이를 생각했다.

까우웁. 까우웁.

어느 틈에 날아왔는지 길 옆 밭고랑마다 수많은 까마귀들이 구물거리고 있었다. 온 세상 가득히 내려 쌓이는 풍성한 눈발 속에 저희들끼리만 모여서 새까맣게 구물거리며 놈들은 그 음산함과 불길함을 역병처럼 퍼뜨리고 있는 것이었다.

언어영역

5

머리 위로 눈은 하염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함박눈이었다. 굵고 탐스러운 눈송이들은 세상을 가득 채워 버리려는 듯이 밧고랑을 지우고, 밧둑을 지우고, 그 위에 선 내 밧목을 지우고, 구물거리는 검은 새떼를 지우고, 이윽고는 들판과 또 마주 바라보는 거대한 산의 뭉뚱이마저도 하얗게 하얗게 지워 가고 있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새벽마다 샘물을 길어 와 소반 위에 떠서 올려놓곤 하던 바로 그 사기 대접의 눈부시도록 하얀 빛깔이었다.

- 임철우, <아버지의 땅>

15. 위 글로 미루어 알기

어려운 것은? [1 점]

얕은 것은?

얕은 것은?



복잡성 과학은 사람의 뇌나 생태계, 주식시장처럼 다양한 요소들이 복잡하게 뒤얽혀 그 작용 과정을 단순한 원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계'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과학이다. 복잡계들이 지니는 공통점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 첫째는 단순한 구성 요소가 수많은 방식으로 상호 작용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환경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구성 요소를 재조직하면서 능동적으로

언어영역

적응한다는 점이다. 가령 사람의 뇌는 수많은 신경세포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으면서, 끊임없이 회로망을 재구성하면서 학습을 하고 환경에 적응한다.

복잡계는 단순한 구성 요소들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을 통해, 완전히 고정되거나 완전히 무질서한 상태에 빠지지 않고 보다 높은 수준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해 낸다. 이를테면 단백질 분자들이 모여서 생명체를 형성해 내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때의 생명처럼, 구성 요소가 개별적으로 갖지 못한 특성이나 행동이 구성 요소를 모아 놓은 전체 구조에서 저절로 돌연히 출현하는 현상을 '창발성'이라 한다. 이처럼 하위 수준에는 없는 특성이 상위 수준에서 '창발'할 수 있는 것은 '자기조직화' 능력 때문이다.

자기조직화 분야에서 학문적 성과를 거둔 대표적 인물이 일리아 프리고진인데, 그는 자기조직화의 대표적인 예로 점균류 곰팡이의 응집 현상을 들었다. 점균류 곰팡이는 영양분이 모자라게 되면 서로 신호를 보내 수만 마리가 일제히 요동을 시작하여 한 곳에 모이기 시작한다. 이것이 어떤 수준에 도달하면 그들은 응집 덩어리를 형성하고 하나의 유기체처럼 정원을 기어다니며 영양을 섭취한다. 그러다가 환경이 좋아지면 다시 흩어져서 단세포 생물의 자리로 돌아간다. 기아 상태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서 그 위협을 이겨내는 점균류 곰팡이의 자기조직화는 환경에 대한 적응의 경이로운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자기조직화 이론은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뿐만 아니라 세계를 변화시키는 시도에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 대해 이 이론을 적용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비디오게임이나 인공 생명 분야의 각종 소프트웨어 등 자기조직화의 연구를 응용한 다양한 제품들이 생산되어 일상 생활에 여러 모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아는 것은? [1 점]



아도 되는 사항은?



(가)

궁벽하게 사노라니 사람 보기 드물고	+ ♪ ???
항상 의관도 걸치지 않고 있네.	??? ♠
낮은 집엔 향량각시 떨어져 기어가고,	??? ij?

용

현상

구조

집



언어영역

7

황폐한 들판엔 팔꽃이 남아 있네.	?????
병 많으니 따라서 잠마저 적어지고,	??, ?⇒
글 짓는 일로써 수심을 달래 보네.	???? I
비 오래 온다 해서 어찌 괴로워만 할 것인가. ◆??과	
날 맑아도 또 혼자서 탄식할 것을.	?????

- 정약용, <구우(◆?)>

(나)

무거운 쇠사슬 끄는 소리 내 맘의 뒤를 따르고
㉠

여기 쓸쓸한 자유(?)는 곁에 있으나
핏뭍이 흰눈은 흘날려 이정표 썩은 막대 고이 묻히고

더러운 발자국 함부로 찍혀
오직 치미는 미움
낮선 집 울타리에 돌을 던지니 개가 짖는다.
어메야, 아직도 차디찬 묘(?) 속에 살고 있느냐.
정월 기울어 낙엽송에 쌓인 눈 바람에 흐트러지고
산(?)짐승의 우는 소리 더욱 처량히
개울물도 파랗게 얼어
진눈깨비는 금시로 내려 비애(?)를 적시울 듯
도행수(◆?) 발은 무겁다.

- 오장환, <소야(?)의 노래>

(다)

아마존 수족관 열대어들이
유리벽에 끼어 헤엄치는 여름밤
세검정 길,
장어구이집 창문에서 연기가 나고
아스팔트에서 고무 탄내가 난다.
열난 기계들이 길을 뚫이면서
질주하는 여름밤
상품들은 덩굴져 자라나며 색색이 종이꽃을 피우고 있고
철근은 밀림, 간판은 열대지만
아마존 강은 여기서 아득히 멀어
열대어들은 수족관 속에서 목마르다.
변기 같은 콧바퀴에 소음 부엉거리는
여름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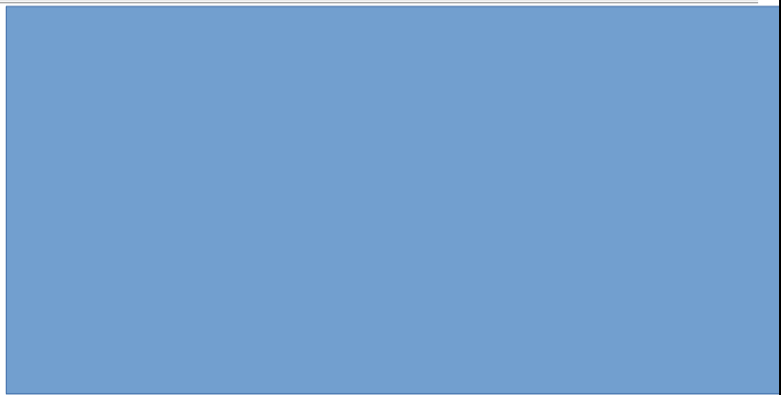
- 최승호, <아마존 수족관>

얕은 것은?



언어영역

않은 것은? [1 점]



치부(?)된다. 하지만 신화는 현대 사회의 탈마법화라는 구호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심지어 신화적인 세계를 갈망하게 만들기도 한다. 신화에 어떤 힘이 있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신화의 힘은 무엇보다도 나와 인류, 나아가 우주에 대한 근원적인 진실을 보여준다는 데에 있다. 한 신화학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신화는 삶의 무수한 다양성을 보여주며 역사와 신성의 밀접한 관계를 알게 해준다. 신화 속의 신들은 인간 세계에서 원초적 의미를 갖고 있는 총체적 경험을 형상화한 것이다. 인간은 신화를 통해 삶의 뿌리를 찾으며 고립된 개체를 넘어선 집단적 정체성을 부여받기에 이른다.

않은 것은?

담론(?)의 발전을 이끌어왔다. 신화는 이처럼 인류 정신 문화의 토양을 형성하며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신화가 지니는 또 다른 힘은 신화가 현대인의 사고 방식과 다른 인식의 틀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은 누구인지, 이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는 아주 부분적인 해답을 내놓을 뿐이다. 현대인의 심리 근저에 자리 잡고 있는 자기 존재에 대한 불안감은 여기에서 연유한다. 그런 면에서 뇌성과 더불어 번쩍이는 번갯불에서 제우스를 보고, 기다리던 봄의 도래에서 페르세포네의 귀환을 보았던 고대 그리스인들이 현대인들보다 더 풍성하고 총체적인 인식의 틀을 갖추고 있었던 셈이다. 신화적인 인식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전(?)이성적이라거나, 신화는 생명 연대 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신화학자들의 언급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의 틀만으로 불안하게 버티고 있는 현대인들로 하여금 그동안 자신들이 비워두었던 인식의 틀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게 한다.

침전(?)되어 신화가 된다. 독선과 불안이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신화적 인식은 우리들에게 근원적 반성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 또한 갖가지 병폐를 만들어 내고 있는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생명 연대 의식을 바탕으로 한 총체적인 시각을 아울러 제시해 주며, 하나의 틀로만 세계를 바라보던 인간들에게 균형 잡힌 인식의 틀을 잡아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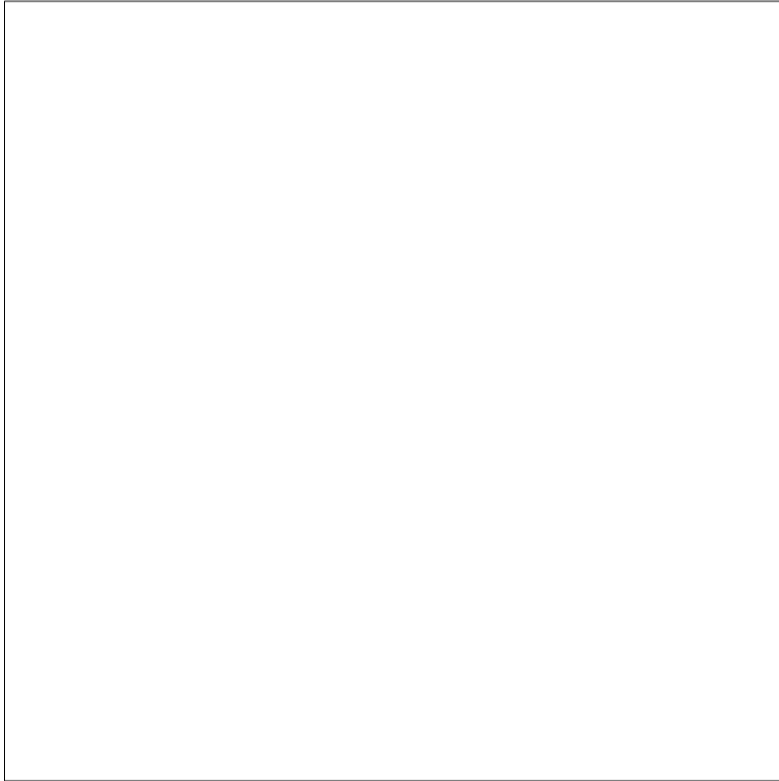
30.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 점]



언어영역

원이 있는 부분은?



않은 것은?



34.

않은 것은? [1 점]

'관용'으로 번역되는 톨레랑스라는 말은 '견디다', '참다'를 뜻하는 라틴어 'tolerare'에서 나왔다. 서구 사회에서 인종, 문화, 종교의 차이는 격렬한 갈등의 씨앗을 뿌렸고, 많은 희생을 치렀다. 이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 톨레랑스다. 1572년 기독교 구교(가톨릭)와 신교(위그노)의 갈등으로 인해 파리에서만 3,000여 명의 신교도가 구교도에 의해 희생되었고, 이후에도 그 갈등과 피해는 악순환을 불러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유럽의 지식인들은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입을 모아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일 것을, 즉 톨레랑스를 얘기하기 시작했다. 종교간의 갈등이 진정되면서 톨레랑스를 외치는 목소리는 종교를 넘어 점차 사회 전반으로 퍼졌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지닌 톨레랑스는 몇 가지 원리들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 원리들은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그 근본 정신은 인간의 완전함에 대한 부정이다. 우선 톨레랑스는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편협함을 버릴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프랑스의 사회학자 필리프 사시에는 '톨레랑스는 자기중심주의의 포기'라고 얘기한다. 자기라는 중심을 버릴 때 또 다른 자아인 타자를 받아들이고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톨레랑스가 모든 차이와 다양성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사시에는 톨레랑스가 정착하려면 ①

차이의 질서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의 평화적인 공존을 전제하는 유사성의 질서도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다르다는 것은 소중하지만 단순히 '차이'만을 존중할 경우 톨레랑스는 모든 폭력적인 행위마저 차이의 표현으로 인정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톨레랑스 속에도 앵톨레랑스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앵톨레랑스'는 인종, 피부색, 종교 등을 이유로 타인의 행동이나 신념을 받아들이지



언어영역

않는 비이성적이고 정당하지 않은 반대를 가리킨다. 하지만 ㉠ '톨레랑스' 속 '에 담긴 앵글레랑스'는 이성적인 반대를 뜻한다. '도덕적인 의무인 앵글레랑스'와 '억압적인 앵글레랑스'를 구분하는 기준은 '이성'이다.

톨레랑스의 또다른 원리는 토론이다. 아무리 뛰어나고 비판적인 천재라 할지라도 자신의 이성과 경험만으로 오류를 바로잡을 수는 없다. 인간의 경험이란 한계가 있고 경험을 해석하는 방식 또한 제각각이므로 경험과 의견을 교환하는 토론이 반드시 필요하다. 타인과의 이성적인 토론은 내 견해의 부족한 점을 보충해주고 상대방의 의견도 보완해 준다. 말과 설득이 아닌 다른 수단, 즉 폭력이나 강제력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믿음이 진리일 수 없음을, 남을 설득할 능력이 자기에게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적극적인 관용인 톨레랑스는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아를 닮았다. 한 손엔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저울을, 다른 손엔 불의를 응징하는 칼을 들고, 편견을 피하기 위해 눈을 가린 여신의 모습은 톨레랑스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톨레랑스는 토론과 설득보다는 힘의 논리가 앞서는 사회, 차이와 다양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회, 이성과 배치되는 억압적인 앵글레랑스가 주도하는 사회에 희망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사회윤리이다.

35. 위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점]

36. ㉠의 의미를 추리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8. ㉡의 예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점]

않은 것은?

가운데 부분의 마디가 다른 것에 비하여 촘촘하게 짧고 또 굵어 있었다. 그래서 그곳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벌레들이 즐락은 구멍이나 있었다.

않은 것은? [3 점]

모든 대나무는 뿌리 부분에 있는 마디가 짧고 위로 올라갈수록 마디가 길어지다가 끝 부분에 가서 다시 짧아지는 것이 상례일 뿐만 아니라 곧게 자라는 것이 또한 당연한 것인데, 지금 이와 같이 길어야 할 부분이 짧고 곧아야 할 곳이 굵어 있으니, 이는 모두 본래의 성질을 벗어난 것이었다.

병든 대나무뿐이겠는가? 이에 나는 "우리 인간도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는 본성이 착하지 않은 사람이 없겠지만, 물욕에 어두워 양심이

언어영역

11

비뚤어지면 저 굵은 대나무와 같이 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고 탄식하였다.

저 대나무는 좀벌레 때문에 그 본성을 잃어버리고, 사람은 욕심 때문에 타고난 성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마음이 병들어 있다면 그 사람을 무엇에 쓰겠는가?

옛사람이 이르기를 "사물을 관찰하여 자신을 반성하여 보라." 하지 않았는가? 내가 저 병든 대나무를 보며 글을 쓰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 하수일, <병죽설(???)>

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 무성한 잎새에 가려진 채 고개를 아래로 떨구고 있어 사람의 손이 잎새를 헤쳐 주지 않고는 눈에 띄기조차 어려웠다. 옆에 있는 옥잠화·실비아·채송화·장미·목단·국화 등이 저마다 요염한 자태를 과시하고 있는 데 비해 혼자 외로이 외면하고 있는 모습은 매우 측은해 보였다. 그러나 다른 꽃들과 미색을 다투지 않고 홀로 잎새 속에 숨어서 피어 있는 자태는 사뭇 고고하기까지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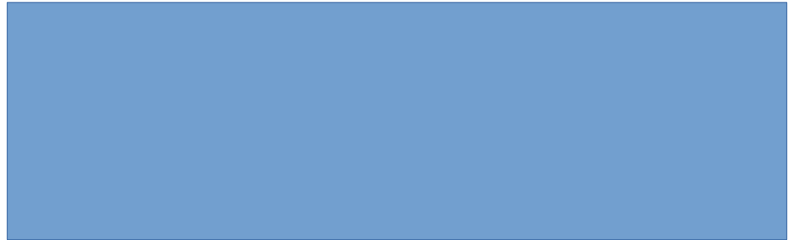
꽃나무도 감성이 있는 것일까? 아마도 지난해 여름 그 홍역을 치른 후 제 나뭇으로 온갖 풍상을 다 겪은 탓인지 저렇듯 자신의 모습을 움츠리는 겸허 속에는 꼭 까닭이 있는 것만 같았다. 주변에 피어 있는 못 꽃들이 화려하면 할수록 나의 마음 쓰임은 저 무성한 잎새 속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는 수국에게로 기울어지는 것이었다.

경박한 현대인의 씩씩한 생리를 생각하다가 문득 저 고개를 떨구고 있는 수국 앞에 와서는 겸허하게 자신을 도야하는 은자의 교훈을 느끼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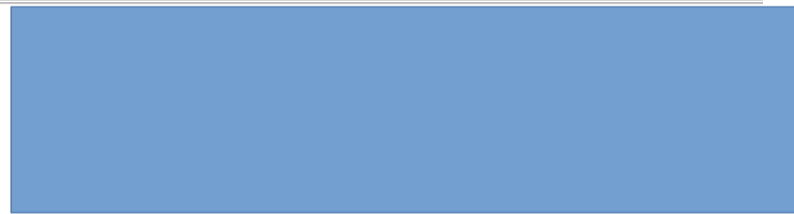
정금미옥(?mf??)은 반드시 열화 속을 거쳐 단련되어야 이루어지듯이 죽음의 경지에까지 도달해 보지 않은 사람은 생의 참다운 의미를 깨달을 수는 없을 것이다. 때로는 하나의 쇠붙이나 돌덩어리보다도 약한 자신인 줄 안다면 어찌 함부로 고개를 쳐들고 교만을 피울 수 있으랴! 그런 의미에서 온상의 화초처럼 길러져 강한 햇빛만 받아도 시들해지는 저 모든 꽃들이 어찌 신산인고(???)나)를 다 겪은 수국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랴 싶다.

나는 문득 "늪은 학은 아무리 굶주렸어도 식음이 오히려 한가하니 어찌 닭이나 오리처럼 아웅다웅 먹이를 다투랴!" 하는 옛 현인들의 명구를 뇌면서 저 수국의 겸허한 모습에서 학의 고고한 자세를 느끼기까지 했다.

- 김병권, <숨어서 피는 꽃>



않은 것은? [1 점]



양왕은 황제의 셋째 아우인데, 그 무남독녀는 용모와 재주가 겸해



언어영역

뛰어나고 시서(??)에 능통하였다. 양왕이 공주를 낳을 때 얻은 꿈에 선관이 매화꽃 한 가지를 주면서, "이 꽃은 봉래산(?a?)의 설중매(???)니, 그대는 이 매화나무에 오얏(?)나무를 접하면, 지엽(??)이 번성하리라." 하더니, 과연 그 달부터 부인이 잉태하여 만삭에 공주를 낳았으므로 이름을 매향(??)이라 하고 자를 봉래산이라 하였으니, 점점 자람에 따라 용모와 재주가 비상하니, 양왕이 애중하여 배필 고르기를 여간 엄격하게 하지 않더라.

그러던 중에 우연히 이선을 한번 보고 대현 군자(???)인 줄 알고 구혼하여 그의 부친 위왕의 허락을 얻고, 장차 길일을 택하려고 하던 차에 이선이 다른 데 취처함을 알고 크게 노하여 퇴혼하려고 하였으나, 매향 공주가 말하기를,

"충신불사이군(?????)이요, 열녀불경이부(???)라 하나이다. 소녀 차라리 불효를 끼쳐서 목숨을 바칠지라도 타문(??)에는 결단코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부친의 뜻에 따르지 않으며, 양왕이 오래 침묵하고 생각한 끝에 말하기를,

"내 슬하에 아들이 없고 오직 너 하나뿐이라 어진 사위를 얻어 후사를 위탁하고자 하거늘, 네가 그러하니 이것이 모두 이 아버지의 박복한 탓이다."

하고 긴 한숨을 쉬며 탄식하니, 공주가 재배하고,

"소녀는 부모의 말씀을 수화(??)라도 피하지 않사오나, 이번 일만은 순종할 바가 아니오매, 그 죄로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고 공주가 뜻을 변하지 않으므로 양왕은 매우 근심하던 차에 이선의 벼슬이 초공에까지 이름을 보고, 왕비 최씨와 상의하여 말하되,

"이제 이량의 벼슬이 초공에 이르고 위인이 특출하니, 매향은 그 둘째 부인으로 삼아도 좋을까 하는데 당신의 의향은 어떻소?"
"그 애한테 물어 보십시오."

공주를 불러 물어본즉,

"타문에는 가지 않기로 결심한 저인데 차비(??) 됨을 어찌 욕되다 하오리까."
"그러면 위왕을 만나서 다시 의논해 보겠다."

하고 이튿날 아침 조회에 들어가서 어전에서 위왕을 보고,

"위왕은 우리 집과 혼인을 이미 허락하고 타처와 하신 것은 웬일이오?"

하고 추궁하자, 위왕이 부끄러워하면서 사과하고,

"저로서 약속을 어김은 닳 둘 곳이 없사오나, 당초에 제가 상경한 사이에 만누이에게 선의 수양을 시켰더니 제가 서울에서 귀가(??)의 소저와 약혼한 줄을 모르고 타문에 혼인하였으니, 지금 와서 변명할 길이 없습니다."

황제가 나서서 말하기를,

"이선의 일은 짐이 다 아는 바이니, 그의 불민함도 아니고 천정(??)함이니, 다투지 말고 양왕은 다른 데 구혼함이 어떤가?"

양왕이 머리를 숙이고 말하되,

"성교(??) 지당하오나 신의 딸이 그냥 늙을지언정 타문을 밟지 않으려 하오니 그 정상이 가장 민망하옵니다."

황제가 매향 공주의 뜻을 칭찬하시고,

"경녀(O?)의 절행(??)이 족히 고인에 못지 않으니 기특하다. 이제 이선의 벼슬이 족히 두 부인을 두리니, 경의 뜻이 어떤고?"

양왕은 황제의 말에 즉시 찬성하여 사은하였으나, 위왕은 엎드려서 아뢰되,

"양왕의 공주는 금지옥엽(???)이라 선의 차위(??)에 굴(+)함이 불가하오나, 어찌 성교를 위월(??)하오리까?"
"짐이 이제 이선을 불러 결단하겠소."

하고 선을 부르시니, 초공이 필경 양왕의 혼사인 줄을 알고, 병을 빙자하고 부르심에 응하지 않자 근심한 정렬부인 숙향이,

"황상께서 명초(??)하시는데 어찌 칭병하십니까?"
"이번에 부르심이 양왕의 혼사 때문이라 칭병하고 피할 생각이오."

이 말을 들은 부인이 정색을 하고,

"공(??)이 비록 나를 위하여 주니 감사하오나, 신자(??)의 도리로 옳지 못합니다."

"나도 그런 줄을 알지만, 어전에서 사혼(??)하면 죄를 면치 못할 것이요, 만일 그 여자를 취하여 불미한 일이 생기면 부인의 괴로움이 적지 않을 것이요, 하물며 그 여자가 국척(??)의 위세를 빙자하여 가중(??)을 탁란(??)시키면 우리 가문의 청덕(??)이 이로 인하여 손상되리니, 황송하나 거절함만 같지 못하오."

"그러나 그 혼사를 거절함은 두 가지 뜻에서 불가하옵니다. 하나는 군명(??)을 거역함이 신자(??)의 도리가 아니요, 하나는 그 여자가 타문에는 출가하지 않고 백 년을 독수공방하오면 그 원한을 사나이 대장부가 살 바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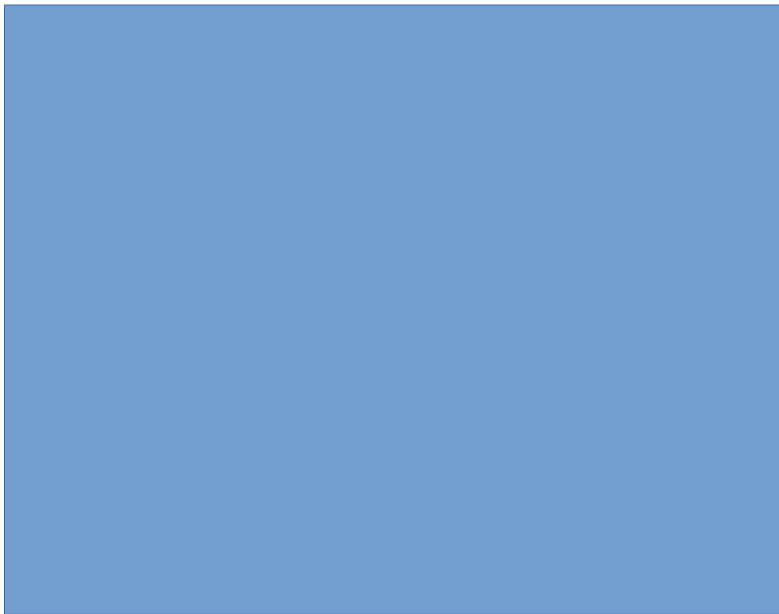
부인의 이런 충고에도 이선이 마침내 듣지 아니하더라.

사관이 돌아가서 그대로 고하자, 황제가 양왕에게 이선이 병으로 입궐하지 못한다 하니 다음 기회로 하자고 말씀하셨으나, 양왕은 초공이 혼사를 거절하고 거짓 병으로 어명(??)까지 거역함을 짐작하고 격분하여 장차 이선을 해칠 양심을 품게 되니라.
- 작자 미상, <숙향전>



언어영역

13



얇은 것은? [1 점]

어려운 것은?



인류 문명사에서 나노 기술 혁명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인류는 농업 시대에는 땅을 정복하였고, 산업 시대에는 자동차 □ 비행기를 통해 공간을 정복하였으며, 컴퓨터와 인터넷을 발명하면서 시간을 정복하였다. 그에 이은 나노 기술 혁명을 통해서는 나노 크기의 영역에서 물질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제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물질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나노 기술 구현의 최대 난제는 나노 물질의 인위적 제조이다. 나노 물질은 '나노 점(?)', '나노 선(?)', '나노 박막(??)'의 형태로 구분된다. 나노 박막의 경우에는 원자층 두께까지 제조가 가능한 상태이지만, 나노선과 나노점을 제조하는 기술은 아직 초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나노선과 나노점을 만들기 위해 하향식과 상향식의 두 가지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하향식 방법은 원료 물질을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작게 쪼개는 방법인데, 현재 7나노미터 수준까지 제조가 가능하지만 생산성과 경제적 효율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상향식 방법에서는 물질을 작게 쪼개는 대신 원자나 분자의 결합력에 따른 자기 조립 현상을 이용하여 나노 입자를 제조하려 한다. 상향식 방법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하향식에 비해 훨씬 유리하나 균일한 나노점이나 나노선을 구현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난점들이 많다는 문제가 있다.

나노 기술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칠 분야는 정보 기술 분야이다. 지금까지의 정보 기술은 반도체 메모리를 중심으로 소형화, 고집적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100 나노미터 이하의 크기에서는 64기가바이트 이상의 고집적화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는 것이 나노 자성체를 이용한 자기 메모리인데, 이것이 성공하면 테라급 메모리의 구현이 가능하다고 한다. 자기 메모리는 집적도가 우수할 뿐만 아니라 전력 소비도 매우 적어, 조만간 현재의 반도체 플래시메모리를 대신하여 이동 통신 기기나 휴대용 컴퓨터에 이용될 것이다.

생체의 상태가 나노 크기 분자의 움직임에 좌우되기 때문에 나노 기술의 혁명은 생명 공학과 의학의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리라 전망된다. 다양한 생체 현상을 나노 수준에서 이해하고 응용한다면 새로운 개념의 바이오센서나 약물 전달 시스템 등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

최근에는, 여섯 개의 단백질로 만들어진 나노 크기의 모터가 인간 몸 속의 ATP를 연료로 구동되어, 수십 나노미터의 플라스틱 공을 움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나노 기술 연구는 초기 단계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얇은 금속선 제조에 성공하는 등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업적들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공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고 창의적 연구 인력을



언어영역

확대해 나가는 국가적 차원의 전략이 마련된다면, 선진국과 대등한 기술 경쟁을 하며 새로운 발견과 발명의 진원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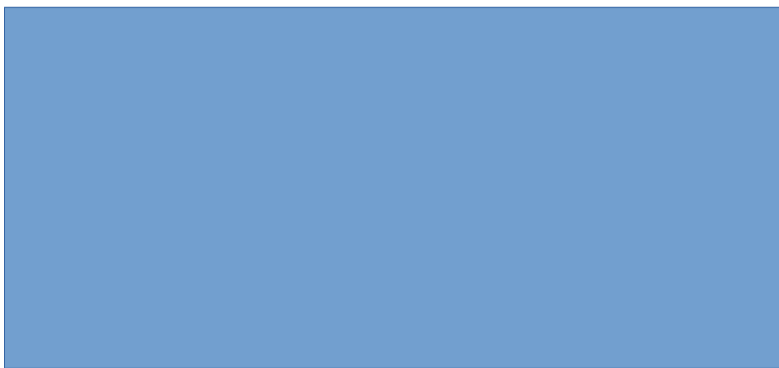
않은 것은? [1 점]

해 추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다. 기사 작성을 위한 토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점]



언어영역

15

19세기 중반 이후 사진·영화 같은 시각 기술 매체가 발명되면서 예술 영역에는 일대 변혁이 일어났다. 작품에서는 일회성과 독창성이 사라지고, 수용자는 명상적인 수용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비디오, 위성, 컴퓨터 등의 '위대한 신발명들'로 인해 매체는 단순한 수단 이상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미를 부여받게 되었다. 이제 이러한 매체와의 소통이 곧 '문화'로 규정되고 있다.

'정보'와 '소통'이라는 비물질적 요소가 사회의 토대로 작용하는 매체 시대를 맞아 이성과 합리성에 의해 억압되었던 '감각'과 '이미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현실과 허구, 과학과 예술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그 자리에 '가상 현실'이 들어서게 되었다. 가상 현실에서는 실재하는 것이 기호와 이미지로 대체되고, 그 기호와 이미지가 마치 실재하는 것처럼 작동한다. 따라서 현실 세계의 모방이라는 예술 영역의 기본 범주가 매체 사회에서는 현실과 허구가 구분되지 않는 시뮬레이션이라는 범주로 바뀌게 되었다.

매체 시대의 특징은 속도이다. 텔레비전이 공간의 차이를 소멸시키고, 컴퓨터가 시간의 차이까지 소멸시킴으로써 매체 시대에는 ㉠

새로운 지각 방식이 대두되었다. 매체에 의해 합성된 이미지는 과거·현재·미래가 구분되는 '확장된 시간'이 아니라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응집된 시간'에 의존하며, 이는 문학과 예술의 서술 형태까지도 변화시킨다. 뮤직 비디오의 경우 시간적 연속성 구조가 파괴된 장면들이 돌발적인 사슬로 엮인다.

이러한 매체 시대의 특징들을 바탕으로 매체 이론가들은 '매체 작품'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전통적으로 예술 작품은 고독한 예술가의 창작물로 간주되었으며, 예술가는 창작 주체로서의 특권화된 위치를 차지하였다. 특정 질료를 독창적으로 다루어 만들어낸 예술 작품은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원본의 가치를 지니며, 모방물은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매체 작품은 고독한 주체의 창조물이 아니라 매체들 간의 상호 소통의 결과물이다. ㉡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복사하여 책을 만들기도 하고, 예술가의 개별적인 작업보다는 협동 작업이 중시되기도 한다. 또한 홀로그래피, 텔레마틱 같은 새로운 장르 혼합 현상이 나타난다.

전통적인 미학론자들은 이러한 매체 작품이 제2의 문명화를 가져오며 수용자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런데 이는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문학적 글쓰기가 대중성을 획득할 당시의 경고와 흡사하다. 예컨대 18세기 모리츠의 『안톤 라이저』는 '감각을 기분 좋게 마비시키는 아편'으로 간주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 문화는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이를 볼 때 지금의 매체 작품도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정상적인 문화 형태로 자리잡으리라는 전망이 가능하며, 따라서 전통적인 예술 작품과 매체 작품 모두 문화적 동인(동인?)으로 열린 지평 안에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않는 것은? [1 점]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은? [1 점]

언어영역

않는 것은? [1 점]

우리말의 호칭어는 친가, 외가, 처가, 시가, 친정 등의 계보에 따라 체계적으로 발달되어 있다. 영어의 'uncle'에 해당하는 단어들인 우리말에서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삼촌, 당숙, 고모부, 외숙부, 이모부 등으로 분화되어 있다. 이는 영어권 사회와는 달리 우리 사회가 촌수와 혈연의 계보에 따라 다양한 친족 관계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현대에 와서는 호칭어가 본래의 사용법과는 다르게 사용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친족 호칭어가 원래의 의미와는 다르게 친족 관계를 초월해서 쓰이고 있는 것이다. 과거 혈연 중심의 집성촌에서는 누구나 친족이 되는 까닭에 친족 호칭어를 광범위하게 사용하였다. 그리하여 혈연을 중심으로 구성된 마을이 거의 사라진 현재에도 친족이 아닌 타인에 대해 '아저씨, 할아버지, 아주머니'와 같은 친족 호칭어를 부담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가족주의가 사회적으로 확대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 이와는 정반대로 가족 간에 사회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호칭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형제나 사촌끼리도 '김 사장, 김 교수' 식의 호칭어를 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친족이 획득한 사회적 지위를 존중하고자 하는 의식이 반영된 결과로, 서열을 중시한 유교 문화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또 사회적 신분에 대한 호칭어를 쓸 때 실제 지위보다는 높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상대방의 신분을 모르는 경우에도 '선생님, 사장님, 사모님' 등의 호칭어를 사용하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이는 과거 서비스 업계에서 대인 관계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던 방법이 널리 일상어에도 확대된 것이다.

이처럼 유교 문화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발달된 우리말의 호칭어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촌수와 혈연의 계보에 대한 의식이 약한 젊은 세대의

호칭어 오용 현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매우 복잡하게 분화된 한국어의 호칭어는 잘만 사용하면 인간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며, 존경심을 표현하여 예의 바른 느낌을 부여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거리 두기와 배타성의 근원이 되고 거짓 존경심의 표현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호칭어의 정확한 쓰임을 알고, 경우에 맞게 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않는 것은?



언어영역

